짧은 이야기, 긴 감동
정치꽁트집「대통령아저씨 그게 아니어요」

항간에는 '5. 5공화국'이냐는 시비도 있지만, 지난 1년여 동안, 특히 제6공화국인 이 시대 우리 사회가 대단한 변화의 진폭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비록 그것이 정권교체기의 일시적이고 과도적인 현상에 불과할지라도, 너무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시절이었기에 제법이다는 생각을 떨굴 수 없기도 하다.

송영 · 김진경 · 이창동 · 박구홍 · 전진우 · 정도상 등 주로 신예작가가 참여한 정치꽁트집「대통령아저씨 그게 아니어요」는 우선 그런 변화를 아낌없이 증명해준다는 데 손색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금기로 되어온 청와대 이야기는 물론 각종 시국 사안들이 때로는 정곡의 虛를 찌르는 날카로운 희화로, 때로는 박진성 넘치는 리얼리즘으로 폭넓으면서도 개성있게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설이, 골드만의 말처럼 타락한 세계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지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면,「대통령아저씨 그게 아니어요」는 훌륭한 소설-그러나 짧은 소설(꽁트)임에 틀림없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깜찍한 반전이 생명인 꽁트라는 점에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느 르뽀 · 수기류보다도 더한 감동을 안겨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여기서 감동이라 함은 문학의 미학가치적 측면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재주의의 확산에서 오는 신선한 충격이라는 의미이다. 기실 우리는 경직된 정치풍토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금기를 당하며, 그야말로 쥐죽은 듯이 살아왔던가. 언필칭 자유민주주의국가이면서도 언론자유는커녕 입만 뻥긋해도 예외없이 철창신세를 지는 '악덕환경' 으로 말미암아 누적된 우리의 앙앙불락은 또 얼마였던가.

이 책은, 책머리에서도 밝힌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 시대의 폭압적 질서를 태질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미상불 대통령의 허위와 위선에 가득찬 권위주의로부터 졸속행정으로 인한 서민들의 불이익, 위장취업자 등의 노사분규, 삼청교육대의 이른바 순화교육, 사학재단의 각종 비리 등 이 시대 우리 사회에 가장 첨예한 빛을 번득이고 있는 갖가지 이슈가 소재화하고 있다. 거기에 실물과 근사한 삽화 속의 인물들이 재미를 더해주기도 한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특히 이창동의「오늘같이 기쁜 날」에서 보여주는 이른바 6 · 29선언의 허구성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는 지나간 것(5공화국)이 아닌, 현재진행형(현대통령의 정치적 운신의 기폭제)이라는 점에서 한층 윗길이다.

張世珍

전남 구례군 구례여자고등학교 교사

일상의 세계, 상징적인 메시지
윤제림시집「삼천리호 자전거」

어쩌면, 우리는 현재 詩의 범람 속에 묻혀 있는지도 모른다. 많은 시들이 쓰이고 읽히고 있다. 동시에, 어떤 시들은 이제 그만 쓰여져야 한다느니, 앞으로는 어떤 시들이 노래되어야 한다느니 하는 의견들 역시도 그만큼 분분하다.

그럼에도, 개중에는 메시지가 너무 성하여 어쩐지 손에 선뜻 잡히지 않는 부피와 속도로 빠져달아나는 것들이나 아니면 개인의 그렇고 그런 감상에만 매몰되어 갑갑증을 넘어 때론 일종의 노여움까지 갖게 하는 시 등, 구체적인 언어로 개인과 세계를 연결지어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들은 다소 드문 듯한 아쉬움을 느껴왔다.

그러다 일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조화 · 극복해낼 만한 맹아가 엿보인다 싶은 조용한 시집 한권을 만났다. 작년 가을에「문예중앙」을 통해 등단한 이래 한편의 시도 미리 발표하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해오다 묶어낸 윤제림의 시집「삼천리호 자전거」가 그것이다.

그의 시에는 원색적인 주장이나 감상, 고집이 없다. 날파리가 날아드는 간장종지 놓인 밥상머리의 자질구레한 살림 이야기에서부터 우리의 역사와 오늘의 현장 등, 폭넓은 세계를 풍부한 어휘의 살집으로 다습게 노래하고 있다.

이 시집에는 제목「삼천리호 자전거」로 열편의 연작시를 담았는데, 그 시는 삶의 사소한 깨달음이나 마치 사진을 보는 듯한 짜장면 배달 자전거의 청각 · 시각적 형상화, 그리고 하늘과 건물 등 거리의 풍경을 실어나르는 듯한 유리 셜은 자전거의 회화적 표현, 전란의 상징물로서의 자전거, 그리고 무엇보다 자전거를 끌고 금수강산이라 감탄하며 신나게 달려봤자 이 땅은 분단된 절반 덩어리 강산임을 아프게 깨닫는 민족 속의 한 개인의 의식 등, 자전거라는 하나의 매개물을 통해 개인의 의식과 그가 몸담은 세계의 역사와 매일의 삶 등이 폭넓게 노래되고 있다.

또한 그의 시는 일상적이고 산문적인 어휘들을 매우 자유로우면서도 절제된 화법으로 구성해 놓고 있는데, 때문에 사도세자를 그리는 풍광이나 춘향이를 노래함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메시지의 시의성과 함께 그 분위기가 매우 참신하다.

그러나 담고 있는 세계가 포괄적이고 그 정서가 진실하고 따뜻한 만큼, 한 주제에 대해 절절하게 매달리는 전면적인 열정은 상대적으로 엷어 시들이 다소 추상적이고 엉거주춤한 분위기를 주고 있다. 오래 반성하고 삭이는 과정을 통해 보다 절실한 노래가 농밀하게 부화되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朴惠暻

인천시 북구 부평6동 643-6.|미주아파트 304호 · 여성단체 간사

새롭게 조명한 중산층 여인들
김원우 지음「세자매 이야기」

오늘날 여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개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가? 보수적인 사회풍조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전통적인 인습과 물질화한 남녀관계, 결혼풍속, 중산층의 성적 방종 등은 여성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닐까?

「세자매 이야기」는 현실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을 꾸려나가는 두 여자를 중심으로 소시민적 삶의 세계를 그리고있다. 대학동창인 '나'와 '명혜'의 의식과 삶은 바로 우리 시대의 중산층 여성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보수적인 기독교집안에서 자란 '나'는 대학재학시절엔 그래도 사회에 무관심하지 않았고 자의식도 강했다. 졸업후 교편을 잡았고, 혼기가 되어 결혼이란 풍속을 저항없이 따른다. 또한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뜻에 따라 갖고 있던 직장도 아쉬움없이 버리고, 다달이 월급을 갖고 오는 남편과 함께 전형적인 중산층의 삶을 누리게 된다. 시부모의 보수적 사고, 남편의 독선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마음의 병은 커만 가고, 의식의 심연 속에 자리잡고 있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생관은 억압되어간다.

그후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는 일상 속에서 '나'는 남성 권위주의, 이른바 전통적인 '현모양처'라는 것에 파묻혀 잊혀져가고 있는 자신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 그는 가계부 대신 자신을 투영하는 글을 담은 수첩을 꺼내 의식과 모순된 자신의 삶을 채찍질한다. 반복되는 삶, 물질만이 만능인 삶의 추악함, 그리고 무의미함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는 시간만이 그래도 그에게는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비로소 생각나는 대학시절의 자기모습, 아울러 단짝이었던 명혜의 모습이 떠오른다.

명혜 또한 중산층 여성의 틀을 크게 벗어난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자립적이지 못하고 개성없는 여인이 되어가고 있는 '나'에 비해, 명혜는 길들여지기를 강요하는 현실의 위협 속에서 자기존재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불행한 가정 속에서도 자의식을 잃지 않고, 타락한 생활 속에서 역시 타락해버린 아버지의 돈으로 대학교육을 받고, 어쨌든 그 교육의 결과로 중산층의 삶에 무리없이 편입할 수 있었다.

이 두 중산층 여인들의 성장과정, 결혼생활,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당함을「세자매 이야기」는 환기시켜주고 있다. 또한 평범한 생활 속에서 반성도 회한도 없이 쌓여가는 여인들의 아픈 삶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한 경고를 하고 있다. 타락한 사회풍조에 의해 더럽혀지고 박탈되어가는 여자들의 삶은 썩어가는 중산층의 소시민적 일상성이 축적된 모습이다.

소리없이 울어가는 여자들의 삶이 결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새자매 이야기」는 사회의 무관심과 방기 속에서 진정한 여성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혜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4-3 · YC 프로모션 디자이너